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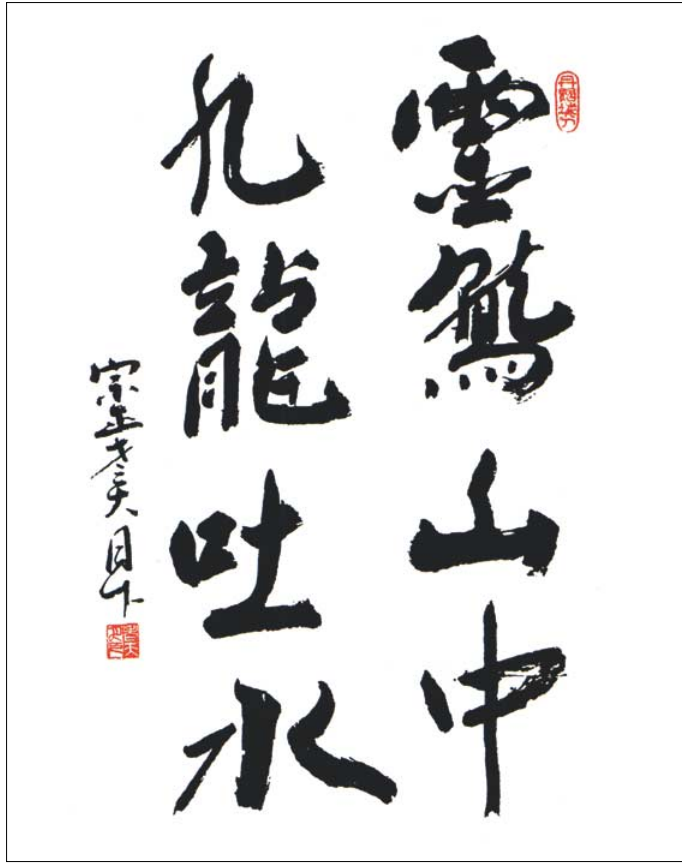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나라번영·민족평화통일·세계평화·불교중흥 기원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 ‘石山 玉龍子스님 대길상도 작품전’ 원만 회향

11주년 맞아 국내외 각계인사 1만여명 동참, 국내 최대 불교미술대제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종정을 역임하신 월하대종사筆.



月下 大宗師 대길상도 증명 법어.



왕희지 서법 '佛' 육룡자 스님 작품.



제11회 석산 육룡자 스님 대길상도 작품전 테이프 커팅 모습.



연일 행사를장을 가득 메운 불자들.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致辭로 축하

연일 수많은 동참인파 행렬 불교중흥의 큰 역사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라번영, 민족평화통일, 세계평화,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불교문화대제전의 큰 흐름으로 정착된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대길상도 작품전이 국내외 각계인사 1만여명의 축하와 동참으로 대성황리 회향되었다.

KBS 김동우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육룡자스님 대길상도 작품전은 웅장한 대법고

와 연합합장단의 찬불공양으로 시작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영부인 내외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화분이 불전에 공양되어 동참한 불자들은 나라번영의 축원에 두손모았다. 연일 수많은 불자와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2007년에는 더욱 성숙한 제전으로 거행할 것을 다짐하여 성대히 막을 내렸다.

금번 대제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큰스님의 치사가 전하여져 수많은 동참 사부대중의 가슴에 환

희심 충만케 하였으며 앤파르타 싸라디 주한인도대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장윤스님,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정각회장 이용희 국회의원, 정동영 열린우리당위원장, 열린우리당 이타회장 윤원호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대제전에 함께하였으며 이미경 국회문화관광 위원장, 청와대 불자 회장 김병준 정책실장, 이근식 국회의원, 이홍구 국회의원 등 각계인사의 축하의 뜻과 동참이 연일 계속되고, 해남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전제사), 안도스님, 무진장스님, 정락스님, 지안스님, 송석구 전 동국대학교 총장 등 불교계 석학들의 초청 강연과 연합찬불제 불교전통예술제 등이 함께 하였으며 소리다도회의 육법공양 등 예년보다 한층 성숙된 갖가지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각종 언론사가 관심있게 취재하고 보도하였다.



N파르타 싸라디 주한인도대사에 작품증정.



열린우리당 이타회장 윤원호 의원 축사.

## 불교전법 역사의 새 지평 · 불교중흥 나라번영에 일조 전세계인에게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

### 致辭

높고 높아 당당하여 만법 가운데 왕입니다.

삼십이상이요 백천가지의 빛입니다. 성현법부가 우러르고 외도가 귀의하여 돌아옵니다. 자비로운 모습 빛이 어렵다 말하지 아니합니다.

여래께서 룬비니 대도량에 아직 그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룬비니 대도량이 어디입니까. 눈닿는 곳마다 여래의 옛도량 아님이 없습니다.

주인 가운데 주인입니다. 긴세월동안 문밖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적연하여 본래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대자대비의 큰배로 사바그해의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

水不離波 波是水  
물은 물결을 떠나지 않으니 물결이 바로 물입니다. 중생이 한 생각 물결 돌이키면 여래의 대원경지입니다.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나 어느일도 결립이 없습니다. 해탈을 구하지 않고 천당도 즐기지 않습니다. 다만 능히 한 생각 무념으로 돌아가면 높이 毘盧頂上을 걸여잡니다.

風和花織地 雲淨月滿天  
봄바람이 불면 꽃이 땅을 수놓고, 구름이 걷히니 달빛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부처님 오시는길에 솟아나는 룬비니의 연꽃향기로 삼천대천 세계가 다 성불의 꽃이 되어 솟아 오릅니다.

대자비 佛性의 光明한 기운을 大吉祥이라 하며 중생성불 연화정도 성취의 원력으로 정성다하여 조성한 작품을 대길상도라 할것입니다. 길상은 범구비유경 제4권에 상세히 설하여져 있습니다.

신라 자장대국통께서 창건하신 불보종찰 통도사와 제방의 수행처에서 정진한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20여년간 전통서

법, 전통동양화필법, 선묵등을 연마하고 선필 대길상도의 一家를 이루어 불보살님 진리광명의 세계를 길상도로 표현하고 조성하여 나라번영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을 봉행한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대제전을 통하여 국내외의 여러 소중한 곳에 玉龍子 석지형 스님 대길상도가 전하여져 한국불교 문화의 그 높은 정신세계가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불교전법역사의 새지평을 여는 훌륭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불보살님께 기원드리며 조성된 대길상도는 불자님의 신심증장과 정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같은 품격높은 불교문화제전은 불교중흥과 밝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통한 나라번영에도 일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장엄한 대제전을 마련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과 동참하신 각계인사 여러분에게 부처님 공덕이 함께하시고, 이 나라에 번영과 발전이 민족에게 화합과 평화로 전 세계인에게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0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불자의 바른신행에 큰 기여

### 축사



평常心이 도입됩니다. 세상에서 공존하는 사람들의 평등각각이 꽃 피어 나고 물 흐르듯 거리낌 없는 자연 현상과 같이 되었을 때 살가운데 원만한 조화가 이루어져 피아간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든 모습이 바로 도입입니다. 꾸밈없는 천지대자연의 실상이야말로 비로자나 부처님 본래의 자리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맑고 밝아 이 세상을 평화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세간에 나투어진 진리의 모습을 길상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상서롭고 건강하고 넉넉하고 복과 지혜와 덕이 구축된 대원경지입니다. 이 세상은 길상의 꽃향기로 넘쳐나 모든이들이 威佛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법신 나투신 성스런 시절에 길상의 꽃을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玉龍子 석지형 스님입니다. 이땅의 성지중의 으뜸 성지 영축산 통도사에 입산독도하여 제방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용맹정진하고 山中에 전하여오는 선필의 큰맥을 이어 고강한 필체의 一家를 완성한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대길상도는 참으로 수행자의 중생을 위한 고된 용맹정진의 힘과 불보살님의 감응하신 공덕의 꽃이라 여겨집니다.

玉龍子 석지형 스님은 불교가 중흥되려면 청년불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오래전부터 군포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연있는 군부대 법당 중창에 적극 동참하여 기증함으로써 군불교 발전을 통한 불교중흥에도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실을 교계는 널리 알고 있습니다.

티벳불교에서 불보살님의 세계를 표현한 만다라 탱화의 또다른 이름이 길상도입니다. 그 안에는 우주만물의 길하고 복된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 각계의 여러인사에게 널리 전하여져 소중하게 소장되고 국제적인 인증까지 함께 받고 있는 대길상도는 불자님의 바른신행과 불교중흥에도 더욱 큰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그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금번 제11회 제전을 이와같이 성대하게 거행하게 되는데 대하여 거듭 축하의 마음을 표현하며 함께 땀흘리고 영광의 제전을 준비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제전이 더욱 불교와 이 땅을 위한 훌륭한 제전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의 모든이들에게 부처님의 공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0년 4월 20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